

500년전 축성 목포진 복원 내달 착공

목포시, 만호동 역사공원 조성 용역보고 객사·내삼문·홍살문 등 원형대로 건축

500여 년 전 축성된 후 구한말 변혁기와 일제강점기 사라진 목포진(목포수군 만호진)이 복원된다.

목포시는 14일 오후 '목포진 복원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갖고, 만호동 1-56번지 일원, 8713㎡에 조성될 목포진 역사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역사공원 안에는 당시 객사 등 원형에 가깝게 복원된 건축물들이 자리하게 된다.

시는 목포진 복원을 통해 근대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목포 역사문화의 거리 관광루트

술의회,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마무리 짓고, 다음달 초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종득 시장은 "목포진 복원은 개항의 도시이자 항구도시인 목포가 500년 이상 된 역사유적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도시역사의 출발점이자 구심점인 이곳을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조성해 원도심 활성화를 이루는 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진은 1439년 세종 21년 4월에 최초로 설치돼 당시 전라수영의 5개 만호진 중 하나였다. 그 후 성종과 연산군 시대를 걸쳐면서 1501년 이 목포만호진이 수군진성이 축성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목포진 조감도



조선시대 만호진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청산도 구들장 논 세계유산 가치 충분"

일 농촌 전문가 등 8명 완도 찾아 보전·관리 방안 논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호인 청산도 구들장논의 가치 재조명과 함께 이를 보전·관리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농촌개발 전문가들이 청산도를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완도군은 14일 "일본 다케이바 학회장 겸 농촌계획 학회장이 세카 유타로 일행과 한국농어촌유산학회 윤원근 회장 등 농촌개발과 농업 전문가 등 8명이 지난 12일 청산도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사진>

국내외 농어촌개발 전문가들은 청산도에서 농업유산의 지속적인 보전 및 관리, 청산도 구들장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센가 유타로 교수는 이번 방문



과 관련 "청산도 구들장논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관계시설을 갖춘 농법으로 그 보전가치가 충분하고 유산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한편 청산도 구들장논은 세계농업유산 등재 여부를 오는 11월 중 결정된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보성 녹차·차밭

英TV 전파 타다

최근 촬영 마쳐

영국의 유명 음식 텔레비전 채널이 보성의 녹차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성군은 14일 "최근 보성차밭에서 영국의 유명 케이블 채널인 Food-network가 목포MBC와 공동제작하는 한시 10부작 프로그램의 촬영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쉽고 간편한 한국요리 만들기'를 주제로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식에 대한 엔터테인먼트-푸드쇼 형식이다.

이번 촬영은 원장, 고추장 등 한국음식의 기원이 되는 장류와 호남권 음식을 소개했으며 보성에서는 한국 차 소개와 함께 녹차를 이용한 녹차쿠키와 녹차라떼 등도 선보였다. 또 차잎을 가마솥에 직접 튀어 차를 만들고 차 맛을 음미하는 장면도 담았으며 CNN이 '세계의 놀라운 경관 31선'에 소개한 차밭의 멋진 전경도 촬영했다.

프로그램은 추가촬영과 편집을 거쳐 영국에서는 내년 1월 초, 한국에서는 내년 11월 말에 방영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찬바람 불기전에...독감 예방접종 행렬

아침·저녁 기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14일 유행성 독감으로 알려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을 받으려는 시민들로 여수 시보건소가 큰 혼잡을 빚었다. 시는 65세 이상 시민과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1~2급, 국가유공자 등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 내 43개 보건시설에서 일제히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저녁 기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14일 유행성 독감으로 알려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을 받으려는 시민들로 여수 시보건소가 큰 혼잡을 빚었다. 시는 65세 이상 시민과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1~2급, 국가유공자 등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 내 43개 보건시설에서 일제히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잔디·나무 식재...영산강 하구둑 친환경 녹화사업

목포와 영암의 관문이자 상징인 영산강 하구둑이 푸른 잔디와 꽃이 있는 친환경 생태 독으로 바뀐다.

전남도는 14일 "영산강 하구둑에 클로버와 양잔디, 작은 나무 등을 심어 사시사철 푸른 친환경 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목포와 영암을 잇는 영산강 하구둑은 길이가 4350m이며 10여년 전에 시멘트벽에 벽화를 그려 놓은 상태다.

이 벽화는 비바람에 퇴색되고 지워

져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목포시, 영암군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근 40여m 구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사가 진 시멘트 벽면에 철망과 매트를 고정한 후 그 위에 염해에 강한 양잔디나 작은 초화류, 관목류 등을 심는 방식이다.

전남도 시범사업을 거친 후 내년

국비 등 10억원을 확보, 전 구간에 시공할 계획이다.

박수옥 전남도 공공디자인과장은 "하구둑 전 구간에 친환경 생태 독이 조성되면 주변 바다, 호수와 조화를 이룬 지역의 대표적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산강 하구둑은 목포시 옥암동과 영암군 삼호읍을 연결한 최대 높이 20m의 토석제(土石堤)다.

/광주=김기영기자 kyg@kwangju.co.kr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2013 아름다운 농촌마을'

완도 청산도 최우수 구례 반곡마을 우수

완도 청산도와 구례 반곡마을에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2013년 아름다운 농촌마을 콘테스트에서 각각 최우수와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우수 마을 선정은 농식품부 및 경관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경관, 지역주민의 자율적 노력,

경관관리, 유관사업 등 심사기준을 종합평가해 이뤄졌다.

완도 청산도는 계절별로 유채, 청보리,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재배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구들장논, 고인돌 등 전통문화자원을 잘 보존하는 등 경관 개선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농교류를 증진시키고 농촌의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경관을 꾸미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농촌마을 4곳을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조용익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우리 도에서는 4곳을 추천했는데 2곳이 선정됐다"며 "지역민 주도의 경관 관리 실천사례를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김기영기자 kyg@kwangju.co.kr

광양시 영터리 수요일에측 어린이집 과다 인가

증원 여부도 비공개 사전상담 통해 결정 특혜 의혹

광양시가 지난해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사전상담을 통해 인가 및 증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도심권 보육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상반기 공고를 냈으며, 이에 신청한 어린이집 40곳 가운데 21곳의 가정·민간 어린이집을 선정 인가하고, 기존시설 14곳은 정원을 늘려줬다.

이 과정에서 시는 어린이집 신규 설치 세부계획도 없이 인가 제한을 해제하면서, 보육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어린이집의 총 원율이 감소하는 등 수요에 비해 어린이집을 과도하게 공급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신규 증설 방침이 일부 신규 신청자에게 사전에 유출되면서, 실제로 일부 신규 신청자는 인가 전 이미 시설 신축에 필요한 사전 절차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간시설 6곳 중 일부는 시설 규모나 정원 규제에 없는 점을 악용해 규모를 키워 인가를 받는 등 인가 과정에서 시의 관리·감독 또한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시가 세부 방침도 없이 건축면적 등 시설규모에 따라 신속 어린이집 정원을 인가해준 것은 문제"라며 "기존 어린이집에는 소재지 변경 불허 등 규제하면서 신규 인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

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시는 면 단위의 일부 어린이집이 도심권으로의 소재지 변경을 요구했으나 공고 조항에 관한 행정동 내를 벗어나지 못하게 규정, 사실상 이전을 불허해 행정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신규 민간시설은 정원에 대한 규제없이 시설 등의 규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사전 상담제를 통해 인가여부를 결정했다"면서 "신청자들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의를 위한 적정한 업무 추진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가 지난해 신규 민간·가정 어린이집 신청자 21곳 정원 918명을 신규 인가하면서 보육시설 총원율은 75% 수준까지 하락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CJ **hello** tv

헬로tv 사은대축제

헬로tv에서 마련한 즐거운 이벤트! 모두가 부러워할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1. **결합상품 맞춤제안** 국내 최고 디지털 방송,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집전화 서비스를 국내 최저 요금으로!

디지털tv 국내 최대 채널 보유 141 디지털 케이블 방송	인터넷 국내 최고 기가급 스피드 초고속 인터넷 전용	전화 항상은 그대로, 요금은 절반! 원통형 인터넷 전용
월 8,000원 (VAT 포함 8,800원)	월 10,500원 (VAT 포함 11,550원)	월 2,000원 (VAT 포함 2,200원)

2. **헬로tv 미니팩** 고객님들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 원하는 채널만 축삭 골라보세요!

상품명	상품설명	주요채널	가격
골프/스포츠팩	골프계열을 비롯한 골프정보가 가득한 골프팩	SBS Golf, JT Golf	3,000원 (VAT 포함 3,300원)
다큐팩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큐팩	NATURE ADVENTURE, Discovery	~3,000원~ 2,000원(세탁가) (VAT 포함 2,200원)
오락팩	최신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오락팩	SBS, MBC, KBOSS	~3,000원~ 2,000원(세탁가) (VAT 포함 2,200원)
키즈팩	영 유아 어린이 대상의 키즈팩	KBS 3Kids, Disney Junior	~3,000원~ 2,000원(세탁가) (VAT 포함 2,200원)
취미팩	바둑채널이 포함된 취미팩	바둑TV, Arirang	~3,000원~ 2,000원(세탁가) (VAT 포함 2,200원)

가입문의 **1588-3450** www.cjhellotv.com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